

◀하나님! 나의 하나님▶ 더 가지고 가거라

어머니가 주섬주섬 챙겨 싸고, 아버지가 뽕뽕 묶은 사과 박스며 보따리들이 설을 지낸 앞마당의 평상 위에 가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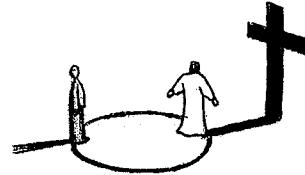
도대체 자식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아낌없이 주고 또 주고 싶을까요. 서울서 타고 내려온 자동차야 어떻게 되든 고구마 한 개, 호박 한 개라도 더 실어보내야 마음이 놓이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애들아! 서울 생활 더 힘들어진다는데 많이 가지고 가거라" 하시면서.....

지금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야 합니다. 신문 한 장이 아까워 벗집을 사용하신 아버지, 행여 추울까 이부자리를 덮어 주시느라 밤잠을 설치시는 어머니를 생각해야 합니다.

삶이 고달플 때는 이른 아침 허연 입김을 뿜으며 집을 나섰던 아버지를 생각해야 하고, 어려울 때는 냇가에 나가 얼음을 깨고 뽕뽕 언 손으로 빨래 하시던 어머니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서 배운 그 사랑과 겸손과 절제와 성실을 마음에 다시 새기면 열심히 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예수! 돈으로 살 수 없어 사랑으로 얻었다” (요13:35) <b>갈보리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익명성 - 명예
제6권 33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5년 8월 7일
☎ 369-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찬송부르는 것처럼 사는 그리스도인



1. 외모에 신경 안 쓰는 사람  
(♪ 349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2. 내 소유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람  
(♪ 69 나 가진 것 다 주의 것이니)
3. 부귀영화를 똥처럼 여기는 사람  
(♪ 102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4. 기도를 최고의 기쁨으로 아는 사람  
(♪ 482 기도하는 그 시간 그 때가 가장 즐겁다)
5.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 246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6. 자나 깨나 전도에 힘쓰는 사람  
(♪ 268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7. 전도를 취미로 알고 좋아하는 사람  
(♪ 274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 하도다)
8. 천국과 같은 가정이 있는 사람  
(♪ 305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9. 항상 쓰임 받을 준비가 된 사람  
(♪ 350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
10. 먹고 사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사는 사람  
(♪ 447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말씀따라 행하기▶

믿음은  
첫술과도 같은것  
정기적으로 매일 사용해야 하나  
남의 것은 쓸수가 없는 것

◀인품따라 행하기▶

상대방의  
깊은 속을 들여다 보라.  
그래서 동기의 순수함을  
찾아보라

◀그땐 그랬지▶ 주산

“농기를 삼천오백칠십오원이에요.....” 다다닥 거리며 주산 알 부딪치는 소리가 교실안에 가득 퍼지던 그 시절, 어떤 친구는 신기에 가까울 정도로 손 놀림이 빨랐습니다. 은행이 최고의 직장이던 시절에 주산 실력은 취업에 중요했습니다. 덕분에 학교앞이나 동네에는 주산, 부기, 암산이란 글씨가 창문에 붙은 주산학원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주산조차 보기 힘들어져 버린 것이 흘러 버려진 학창시절의 안타까움처럼 남아 있습니다.



#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갈 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47장	다 갈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40 (사 58장)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188장	
기 도 Pray		노은숙 권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호세아 6:1-6	인 도 자
성 가 대 찬 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선지자 시리즈(8)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440장	다 갈 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갈 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 ◆8월의 예배위원◆

일자	기 도	헌금위원	주방봉사
7	노은숙	민병구	4구역
14	박일영	박미숙	5구역
21	이광희	박덕철	학생부
28	이규임	박병민	6구역

### ◆8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7		구역예배(12)
14	광복기념주일	믿음의어머니기도회(16)
21	친교주일	식사친교
28	이삭줍기주일	

2005년 교회생활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1. 성경 1독만 하기(하나님 사랑)	*여러교회를 다녀 본 후 결정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2. 전도하지 말고 대신 친절하자(이웃 사랑)	
3. 처음 만난 날 처럼(교우사랑)	
주일예배. 아동, 학생: 낮 12시   수요일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5   청년부: 토 저녁 4시

### 1. 교우소식

<등록> 손상섭, 구미희 성도(4선교.2구역). 재식 18A Tarama St. Avondale  
 <이사> 박덕철, 정혜숙 집사 14A Hoast St. Remuera ☎ 524-6767  
 <개업> 송의수, 이성희 성도. 양말가게. West Field Shopping Mall. Takapuna  
 <전화번호> (1)김성국 목사 021-217-2488  
 (2)윤형권, 신영화 집사(USA) 703-934-1004  
 \*워싱턴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 2. 정기구역예배 <금요일 저녁 7:30. 구역별>

\*서로의 복된 삶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구역예배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지장이 없다면 늦게까지 얘기 나눠도 좋은 한 달 한번의 구역식구와의 만남입니다.

### 3. 자원봉사자 : 감사합니다.

<학생부> "안전하게 길 건너기" : 조재근. 방명아 집사  
 <화장실 청소(7월-9월)>: 정이지 집사. 기현, 기원.  
 <청년부 교사> 권용일 집사. 김용석 집사. 조재근 집사

### 4. 수요일예배 <수요일 저녁 7:30 >

\*더 은혜로운 찬양을 하기 위해 수요찬양팀의 지난 금요일 아주 늦은 밤까지의 수련회를 보았다면 누구라도 진한 감동이 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 5. "MATE선교회" 선교후원금모금을 위한 구충제 판매 < Hall. 1정 \$3 >

\*캄보디아, 불가리아, 그리스집시 현지인 사역자를 후원하기 위한 선교후원금 모금을 위한 판매입니다 <문의: 박성천 목사>

### ◀착한 시인들▶

#### 일곱송이 수선화(Seven Daffodils) Brothers Four 노래

나는 큰 집도 없고 땅도 없어요.  
 손 안에 돈도 없구요  
 하지만 저 굽이치는 산 위로 떠오르는  
 아침을 당신께 보여드리고  
 키스와 입곱송이 수선화를 드릴 수 있지요  
 당신께 예쁜 걸 사 드릴 재물은 없지만  
 달빛을 엮어 목걸이와 반지 만들어  
 당신께 드릴 수 있어요.

.....  
 황금 빛 일곱 송이 수선화는  
 햇빛 속에 반짝이다가  
 하루 일과를 마친  
 우리의 저녁 길을 밝혀줄거예요.  
 그러면 난 당신께 음악과 한조각 빵을 드리고  
 소나무로 만든 배개로  
 당신의 머리를 편히 쉬게 해드릴 거예요.

햇살 진한 점심때 나가보니 경사진 잔디밭에 군데군데 수선화가 피었습니다. "봄 벌에 머느리 쪼이고 가을 벌에 딸 쪼인다"고 봄벌 따가움에 노란 빛깔들이 폴폴 풍깁니다. 봄은 그 자체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수선화 한송이 갖고 들어가 선물을 하려해도 쑥스럽다는 생각이 더 커 그만 두었습니다. 멀어도, 가까워도 하기 어려운데 사랑표현 인듯합니다. 대신 노래로 흥얼거리지만 그 뜻을 알지 못하는 눈치입니다. 수선화 일곱송이 묶어 선물하기 좋은 이즈음입니다. 감동은 큰 것에서가 아니라 마음 씩씩이에서 옵니다.